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Qatar poised to sign first berth reservation for LNG orders

카타르가 한 개의 조선업체와 첫 LNG선 건조 슬롯 예약 계약을 금일 체결한다고 보도됨. 카타르는 최소 60~80척의 LNG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름 전 120척의 건조 슬롯을 확보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관계자는 카타르가 LNG선 수주잔고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힘. (TradeWinds)

## KSS Line orders methanol-powered tanker newbuilding

현대미포조선이 KSS해운에 메탄올 추진 MR탱커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50,000DWT급 석유제품운반선으로 메탄올 추진선이며 납기는 2022년 예정이라고 보도됨. 계약 내용으로 추가 옵션분이 포함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됨. (TradeWinds)

## 한진중공업의 행로는 결국 매각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진중공업의 매각이 추진된다고 보도됨.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4월 21일 한진중공업의 인수 합병에 동의하는 결의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한진중공업 지분은 산업은행 16.14%, 우리은행 10.84%, 농협은행 10.14%, 하나은행 8.90%, 국민은행 7.09%, 수출입은행 6.86% 등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PC도 동이 난다

최근 한 주 동안 원유와 condensate 해상 저장량이 2,320만 배럴 증가하여 총 저장량이 1.5억 배럴에 도달했다고 보도됨. 이 물량이 VLCC 73척을 포함한 총 174척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도됨. 지난 '09년에 1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해상 선박에 저장되었던 이후 최대 기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두산중공업에 6천억...기간산업 대책 윤곽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5,868억원 상당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1년 만기로 5,868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으며, 이는 27일 만기 도래하는 5억달러의 외화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도됨.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두산중공업의 차입금 규모는 4조2천억원 수준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

## Brent crude takes hammering as WTI still stuck in red

브렌트유 선물 가격 또한 전일 WTI 5월 선물 가격처럼 폭락했다고 보도됨. 브렌트유 6월 선물 가격은 23% 하락하여 배럴 당 19.60달러로 거래되었다고 보도됨. 시장관계자들은 원유 초과공급량이 증가하고 해상 저장용 선대가 확대되면서 선물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Upstream)